

# 광산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살린다

### '민생 활력 종합대책' 본격 추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공사 선금 지급률 50% 이상 확대

광주 광산구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민생 활력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 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을 통해 영업소 출입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추가로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서는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4771건이 25%인 9억 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광산구는 지역 업체의 자금 유동성 회복도 돕고 있다. 계약이행 보증증권 금액기준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2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계약이행 보증요건을 완화해 지역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선금 지급률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등 공공시설 공사를 조기 발주해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구는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나선다. 애초 목표인 54%보다 높은 60% 집행률을 목표로 상반기 안에 2535억 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구는 선금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관급자재 선고지, 공공부문 선결제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이달 말 성립될 2회 추경 예산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광산구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역업체 살리기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구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며, 통상 30일 이상 소요되는 한국전력, 광산소방서, 제1전투비행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광산구는 다른 분야와 업종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산구 공직자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직자 광산기행', 골목상권에 생기를 전하는 '상생 점심여행', '꽃피는 민생의 날(직원 한마음의 날)' 등이 대표적인 활동 프로그램이다.

'공직자 광산기행'은 이달부터 11월까지 4인 이



'상생 점심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직원들이 최근 골목상권 내 식당을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상 팀을 구성해 광산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도락, 학습·체험, 취미·여가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상당수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상생 점심여행'은 공직자들이 골목상권을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

으로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돕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올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민생"이라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국강현 광산구의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근거 마련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방안 차원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남성 육아 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강현 의원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돼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과 부모 모두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건강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김명수 광산구의원 시책일몰제로 행정 혁신 도모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는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구의장이 결산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의 일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몰 대상 시책은 ▲목적 달성으로 판단되는 시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의 불만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시책 ▲기간 만료 시책 등이다. 또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일몰이 결정되면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와 광산구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의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심 집중

### 민주당 집안 싸움 루머에도 김명수 의원 의장 추대 사전 합의

### 7월5일 임시회서 결정될 듯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제비뽑기'까지 연출하는 촌극을 빚었던 제9대 광주 광산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광산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집안싸움이 예측되는 등 다양한 루머가 떠돌았다.

낙선한 국회의원을 지지했던 구의원을 가운데 1명이 의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설까지 나오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고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빚는 '제비뽑기' 촌극과 유사한 상황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단 광산구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후반기 의장 선출을 추대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반기 의장 후보로 지목된 김명수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부의장 후보로 이우형 의원, 운영위원장 박혜원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박현석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김영선 의원, 시민안전위원장 양만주 의원 등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된 김명수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7월 5일 예정된 임시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동료 의원들의 합의안에 감사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전체 18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14명, 진보당 소속 3명, 녹색정의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말 타고, 활 쏘고, 안산 깜짝 사인회까지

### 테마형 관광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 두 번째 여정 호응

광주 광산구가 지역여행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운행중인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가 지난 15일 두 번째 여정을 끝마쳤다.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는 광산구의 역사, 생태, 문화 등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테마형 투어버스다.

지난 5월 성공적인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여행에 나선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에는 12가족 37명의 시민이 탑승했다.

대한민국 제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장 룩슈지, 월봉서원 등 광산구의 명소를 중심으로 여행한 5월과 달리 이번 6월 여행은 송산승마장, 광산구 양궁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여행이 펼쳐진 송산승마장에서 양 떼에게 먹이를 주고, 직접 말을 타기도 했으며, 기수가 보여주는 공연도 관람했다.

광산구 양궁체험장에서는 안산, 기보배 등 세계적 선수를 지도한 김성은 감독에게 직접 양궁을 배우고, 활을 쏘는 체험을 즐겼다.

이날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에 참여한 시민은 "자녀들과 즐겁게 여행하다 보니,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다"며 "광산 알리요 투어



광산구 양궁체험장을 방문한 학생이 안산 선수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버스가 정례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광산구는 오는 9월과 10월 두 차례 더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시범 운행 정보 및 이용 방법은 광산구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광산구 '배우랑' 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정량표창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